

A detailed science fiction illustration serves as the background for the book cover. It depicts a futuristic battle scene with a large green spaceship at the top, a smaller white and blue ship firing a green laser beam, and a character in a dark, armored suit with a helmet and mask in the foreground. The scene is set against a backdrop of a large planet and a starry sk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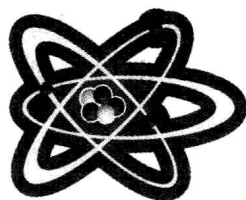
장편과학환상소설

야망의 비전

김장혁 저

연변인민출판사

장편과학환상소설



야망의 바다

김장혁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리영철
책임교정: 최순란
기술설계: 정선숙
삽 화: 장향희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狂妄的大海: 朝鲜文 / 金长赫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12

ISBN 978-7-5449-0490-2

I. 狂… II. 金… III. 科学幻想小说-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47.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200426号

狂妄的大海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10.875 字数: 30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490-2 (民文)

版次: 2008年12月第1版

2008年12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25.00元

如发现印装质量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언제부터인가 나는 별들이 깜빡이는 하늘이 무너질가봐 근심하였다. 잠수함 같은 고래가 웅크하는 바다가 마를가봐 밤중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지구촌 사랑의 오아시스가 재더미로 돼버릴가봐 두려워났다. 지어 별이 날아와 지구를 충돌할가봐 공포에 떨었다.

우주에서 누군가 나를 꾸짖는것이 아니겠는가?

미친 놈이 별 근심을 다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는가? 왜 하늘에 구멍이 펑펑 뚫릴가봐 정신 나간 놈처럼 한숨만 쉬는거냐? 별이 지구를 부딪치겠으면 부딪치라지. 눈감잡할 사이에 함께 죽으면 다 아닌가? 지구가 따가와나고 이 큰 땅이 꺼질가봐 정신병환자처럼 근심할게 뭐냐? 전쟁과 방사성오염으로 푸르른 들판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어데서 살겠는가고 개탄할 필요까지야 있겠는가?

그러나 나는 태산같은 근심을 안고 환상의 나래를 펼쳐 야망으로 차넘치는 바다로 훨훨 날아갔다. 그 푸르른 야망의 바다에 인류생존의 룡꿈을 가진 남북골과 금붕어가 수중충집을 짓는다. 룡과 독사, 고래들이 악마와 지구보위해전을 펼친다. 거북선이 불을 토하고 문어가 악마새끼들을 바다물에 집어넣는다. 하늘에 구멍을 뚫었던 클론바우꼬마대통령마저 천



년곤잠에서 깨어나 지구촌의 평화와 생태환경을 보호하려고 핵유도탄을 안고 악마에게로 덮쳐든다. 남북골은 핵로켓으로 지구를 충격하려고 날아오는 소혜성을 박산낸다. 욕심쟁이 존슨악마는 지구촌을 독점하려고 전쟁의 불길로 지구촌을 불태워버리고 하늘과 땅, 바다마저 시꺼멓고 찢뜩찢뜩한 기름칠을 하려고 미쳐날뛰다. 예는 화살로 악당들을 죽치고 녀와는 가냘픈 몸으로 펑펑 구멍난 하늘을 다시 기우려고 윈심을 쓴다. 렬강들의 략탈적인 개발과 에네르기쟁탈전으로 하여 지구촌은 날따라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수중충집마저 신기루처럼 무너진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살기 어렵게 된 인류, 인류는 어데서 살아야 하는가?

환상으로 출렁거리는 《야망의 바다》를 읽고나서 그대들도 하늘이 무너질가봐 한가닥의 한숨소리라도 낸다면 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리라.

저 자

2008년 5월 27일



야망의 바다

차 례

1. 괴상한 태몽 / 1
2. 룡꿈 / 12
3. 신비로운 달나라여행 / 33
4. 룡궁으로 들어간 금붕어 / 53
5. “하늘과 땅의 겨룸” / 61
6. 꿀벌의 죽음 / 67
7. 아카시아관광 / 79
8. 꿀벌이 죽은 내막 / 99
9. 지하밀실에서 세운 보복계획 / 108
10. 전쟁과 평화 / 116
11. 천년곤잠에서 깨어난 클론바우꼬마대통령 / 128
12. 복수의 불바다 / 140
13. 검은 함의 비밀 / 153
14. “욕심을 버리십시오!” / 164
15. 전쟁의 상처 / 178
16. 노벨평화상 / 189
17. 무빈총사령관 / 201
18. 바다에 심은 꿈 / 218



- 19. 에네르기쟁탈전 / 228
- 20. 욕망의 바다 / 242
- 21. 아코해전 / 255
- 22. 골치 아픈 태공쓰레기 / 266
- 23. 야망의 바다 / 274
- 24. 무릎을 꿇고만 톰사령관 / 283
- 25. 기습 / 296
- 26. 달과 소혜성 그리고 지구 / 307
- 27. 존슨악마의 끝장 / 315
- 28. 지구촌의 인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는가? / 331



1. 괴상한 태몽

세월은 류수와도 같이 빨리 흘러 이 땅에는 어느덧 기원 3948년 봄이 깃들었어요. 아름다운 지구 땅덩어리에는 알락달락 이쁜 꽃들이 방실방실 웃음지으면서 활짝 피어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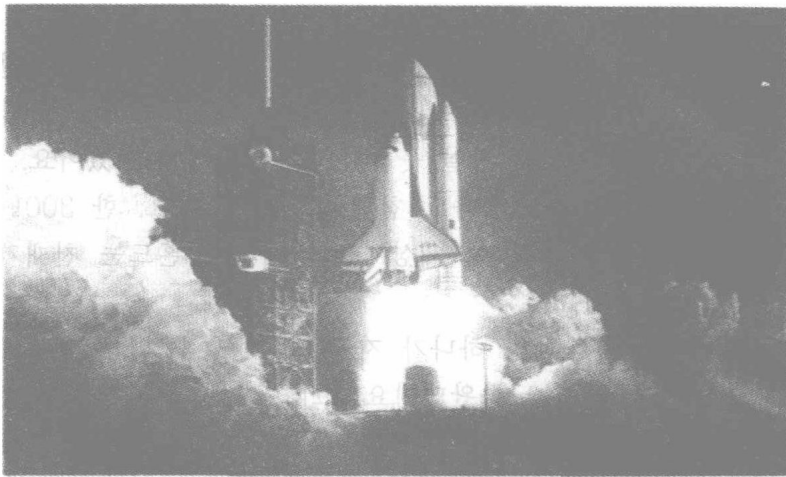
누구의 말인지는 몰라도 참말 옳은 말이에요. 한 300년이나 400년에 한번씩 이 세상에는 천하를 뒤흔드는 천재가 나온다고 하였어요.

500년전에 소혜성 하나가 지구를 충돌할수 있는 궤도에 들어서서 지구에로 날아왔었어요. 그때 무빈총사령관을 비롯한 지구촌의 군사들은 과학자들과 군민들과 함께 리철학총사령관을 위수로 하는 달나라군사들을 제압하고 지구를 충돌하려는 소혜성을 핵로케트로 까부시고 지구를 보위하였었어요.

그번 제9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한동안 인간세상에는 전쟁을 혐오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국부지역 갈등이 몇번 있었을뿐이지 세계대전은 없었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있을거예요. 제2차세계대전기간에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하여 수십만명이 죽고 온 시내가 재더미로 되었었지요. 제9차세계대전기간에는 나라마다 원자탄과 질자탄의 위력을 과시하여 핵전쟁을 끊임없이 하여



아름다운 땅덩어리를 차지하고 자원을 약탈하였어요. 하늘만큼 무한정한 욕심을 가진 인류의 아귀다툼으로 하여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불품없이 파괴되어갔던것이예요. 그리고 수십년이 지나도록 원폭피해의 상처가 가실줄 모르고 사람들은 방사성오염물질로 하여 피부병에 걸리고 원격피해를 입은 2세대 내지 3세대까지 기형아를 낳게 되었지요.



위낙 지구촌의 사람들은 히로시마원폭피해의 상처를 매만지면서 그때로부터 원자력을 지구촌과 인류를 해치는데 쓴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핵발전소를 세워 전기를 생산하는데 썼어요. 지어 달나라의 헬륨-3까지 가공하여 지구촌에 날라다가 발전하고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욕심이 끝이 없었어요. 본래 자기 밥그릇이 어느만큼 하면 그만큼 먹고 살면 되는건데요. 작은 밥그릇에 밥과 채를 넘쳐나게 담아먹으려고 또다시 아웅다웅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여러 나라들은 또다시 자기 판도를 넓히려고 갖은 방법을 다하여 짧은 시간내에 사람들을 몰살시킬 살인무기를 연구제작하기 시작하였어요.

바로 이런 시기에 아시아주의 코치아라는 나라의 유명한 지질학자 김지학박사와 해양수산물학자 박수혜박사의 가정에서 괴상한 남북골남자애와 복숭아 같은 여자애 오누이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이 오누이쌍둥이가 태어나기전에 이 집 식구들은 별의별 태몽을 다 꾸었어요.

어느날, 김지학박사가 지질탐사망치로 광석을 탐사하면서 가파로운 절벽을 기여오를 때였어요. 절벽우의 소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금빛이 눈부시게 반짝이는것이였어요.

(저게 무슨 빛이지?)

김지학박사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황급히 절벽우로 기여올라갔어요. 아차, 저게 뭐예요. 절벽끝 돌틈에서 자란 두길도 넘는 소나무우에 금빛이 반짝이는 금망치와 금밥주걱이 걸려있지 않겠어요.

(이건 하늘이 나에게 내린 보물이구나. 와싸, 오늘 정말 뽕이로구나. 이런 멋에 지질탐사를 하는 지질학자로 되는데 아닌가?)

김박사는 안간힘을 다하여 절벽끝에 우뚝 서있는 소나무우로 아득바득 기여올라갔어요. 그는 소나무를 두다리로 죄여안은채 랑손에 금망치와 금밥주걱을 쥐고 번갈아보면서 좋아 어쩔줄을 몰랐어요.

“따웅! 그건 내 금망치야!”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호랑이의 울부짖음소리가 울렸어요.



김박사가 머리를 들어보니 이마뼈기에 왕(王)자를 새긴
얼룩호랑이가 벌써 덮쳐들고있었어요.

“아차, 이놈 호랑이야, 이게 어디 네 금망치냐?”

“잔소리 말구 어서 다구. 안 주면 네놈부터 사지를 뜯어
먹어버리겠다.”

“사람 살려요!”

김박사는 깜짝 놀라 눈을 딱 감은채 혼이 날아나버렸어요.

한참후 정신을 차린 김박사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까딱
하지 않고 소나무우에 앉아있는데 웬 일인지 호랑이의 자취
가 없었어요. 이윽고 무슨 뜨거운 입김 같은것이 김박사의
발에 풍겨왔고 아래쪽으로 하여 무엇이 버둥거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김박사가 눈을 살며시 뜨고 보니 이제
웬 일이에요. 글썽 김박사의 발이 놓인 바로 앞의 두 소나무
가지사이에 호랑이가 대문짝 같은 아가리를 짝 벌린채 목이
떡 걸려 통사발눈을 꺾어버리면서 두다리를 버둥거리고있지
않겠어요.

김박사는 금망치와 금밥주걱을 품에 넣고 탐사망치로 호
랑이 대가리를 딱딱 두드려보았어요. 소나무가지사이에 목이
떡 걸린 호랑이는 통사발눈을 편히 뜨고서도 용빼는수없이
김박사의 망치에 대가리를 딱딱 맞아대야 하는 팔자로 돼버
렸어요.

김박사는 호랑이가 불쌍해서 망치로 때려죽이지 않고 소
나무가지를 두손으로 안간힘을 다해 벌리고 호랑이를 구해주
었어요. 땅바닥에 털썩 떨어진 호랑이는 소나무밭으로 다리
야 날 살려라고 꼬리 뺏뺏해서 달아나버렸어요.

한참후 김박사는 소나무에서 천천히 내려 금망치와 금밥
주걱만 가지고 절벽길을 에돌아 산에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송냥이 울음소리가 들려 잔등에 식은땀이 후줄근히 흘렀어요.

이때 등뒤에서 또 “파웅!” 하고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울렸어요.

(에크! 이젠 영낙없이 죽었구나.)

김박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딱 감아버렸어요. 그런데 김박사의 앞에 뭔가 육중한것이 와 털썩 주저앉는것 같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 아니겠어요.

“내 잔등에 올라타오. 누가 감히 나를 살려준 당신을 잡아먹는다고요?”

김박사가 눈을 살며시 뜨고 보니 얼룩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 너럭바위같이 넓죽한 잔등을 들이대고있었어요.

“아니, 산중대왕님은 무엇때문에 나를 구하려 합니까?”

“자네가 소나무가지에 걸린 나를 구해주었기에 나도 자네를 구해주는거요. 얼른 내 잔등에 올라타오.”

김박사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얼룩호랑이의 잔등에 올라탔어요. 송냥이들과 호랑이, 곰, 사자 등 야수들은 김박사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었어요. 그러나 야수들은 산중대왕인 그 호랑이가 두려워 호랑이의 잔등에 앉은 김박사의 뒤를 따라 달려오면서도 털끝 하나 다치지 못하였어요. 이렇게 김박사는 산중대왕 호랑이의 잔등에 업히워 야수들이 득실거리는 수림속을 벗어나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던것이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집이라고 돌아온 곳은 글썽 호랑이들이 득실거리는 호랑이굴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김박사는 “사람 살려요!” 하고 고함치면서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제야 그는 그것이 한낱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것을 알



게 되었어요. 그가 품속을 만져보니 호랑이의 잔등에서도 신
경을 써가면서 간직하였던 금망치와 금밥주걱은 온데간데 없
지 않겠어요.

김박사는 꿈에서 주어진 금망치를 미루어보면 장차 태여
날 어린애는 자기와 같은 지질학자일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금밥주걱은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가?)

김지학박사가 안해 수혜박사와 아무리 토론해봤자 꿈에서
나타난 금밥주걱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풀리지 않았어요.

수혜박사는 그저 생글 웃으면서 “아마 밥주걱을 가지고 일
할 주부로 될 딸을 낳겠어요.”라고 제나름대로 해몽하였어요.

그러나 김지학박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니
요. 꼭 지질학자로 될 아들을 낳을거요.”라고 자기 해몽을 고
집하였어요.

같은 날 수혜박사도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파도가 출렁이는 바다를 좋아하는 그녀가 배를 타고 푸
르른 바다로 나갔어요. 그녀가 한창 갈매기가 내려치고 집채
같은 파도가 출렁이는 먼바다를 바라보면서 환성을 올릴 때
였어요.

갑자기 하늘에 먹장구름이 몰아쳐오더니 번개가 번쩍이
고 우뢰가 하늘과 바다를 진동하였어요. 뒤이어 폭우가 휘몰
아치고 배가 기우뚱거리기 시작하였어요.

“어머나, 이걸 어찌지? 구름 한점 없던 하늘에서 불시에
태풍이 휘몰아치고 폭우가 쏟아지다니?”

당황해난 수혜박사는 배머리를 급히 돌려 백사장이 하얗
게 펼쳐진 해안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어요. 이때 갑자기 저쪽
으로부터 돌개바람이 휩 불어쳤어요. 아니, 저게 뭐예요? 아,
글쎄 소용돌이에 휘말려 바다물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물기둥



이 구름속으로 빨려들어가는것이 아니겠어요. 수혜박사가 급히 유람선의 키를 구십도로 돌렸지만 때는 이미 늦었어요. 배고 사람이고 다 돌개바람에 휘말려 하늘로 날아올라갔어요. 그런데 별일이에요. 배가 빙글빙글 돌면서 휘말려 구름속으로 빨려들어갔지만 배우의 사람 하나, 물통 하나 바다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구름속에 가서 멈춰섰어요.

(정말 귀신이 곡할노릇이야.)

수혜박사는 배가 잠깐 멈춰서자 한숨을 호-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구름아래에 칠색무지개가 놓이더니 유람선은 구름우에서 칠색무지개를 타고 천길나락과도 같은 바다로 쪽 미끄러져내려갔어요.

“어마나!”

수혜박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어요. 그때 칠색무지개가 언제 있었느냐싶이 쪽 걷히면서 수혜박사의 품속으로 날아드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다위로 미끄러져내려온 배는 잠수함으로 변하여 바다물밑으로 쑥 자맥질해 들어가는것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내려갔을까? 바다물밑은 시꺼멓게 어두웠어요.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수혜박사는 바다물밑을 잠수해본적이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우면 적어도 천여메터 깊이의 바다물밑이라는것을 어림짐작으로도 알수 있었어요.

잠수함이 멈춰서더니 이윽고 뭔가 벌럭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았어요. 눈을 뜨고 찬찬히 여겨보니 잠수함은 오색령롱한 불빛이 반짝이는 통궁대문앞으로 내려왔던것이예요.

통궁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안에서 철갑상어문지기가 아가리를 썩 벌리고 나왔어요.

“수혜박사, 우리 통궁으로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통



왕께서 수혜박사를 보자고 합니다. 어서 룡궁안으로 들어갑시다.”

수혜박사는 잠수함에서 내리지 않을수가 없어 잠수함문을 열고 금빛이 반짝이는 금돌을 밟으면서 철갑상어를 따라 룡궁으로 들어갔어요.

천정과 벽에서 황금빛과 비취빛이 반짝거리며 궁전은 참말로 수정궁같이 아름다웠어요. 금붕어아씨가 하느적거리며 춤을 추면서 반기였고 게와 거북기는 연회상을 차리기에 분주히 돌아쳤어요.

룡좌에 앉은 룡왕은 수혜박사를 보자 흰수염을 쓱쓱 매만지면서 통방울눈으로 상냥하게 수혜박사를 내려다보며 대문짝 같은 입을 열었어요.

“수혜박사, 환영하오. 여기까지 오느라고 몹시 놀랐겠소. 오늘 내가 수혜박사를 모셔온것은 다름아니라 그대가 우리 바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해온 공덕을 기리어 그대에게 아주 총명한 쌍둥이오누이를 점지해주려고 그랬소. 장차 이 애를 잘 길러서 우리 바다를 확고히 지켜줄것을 바라오. 지금 우리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피해에 바다물이 더러워져서 살기 어렵게 되었소. 그러니 명심해 오누이를 키워 우리 바다를 지켜주오.”

수혜박사는 감히 룡왕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인채 “예, 그렇게 하겠나이다.”라고 대답하였을뿐이에요.

이윽고 연회가 시작되자 거북기들과 게들이 다리로 가야금을 튕는 아름다운 멜로디에 맞춰 금붕어들이 남실남실 춤을 추었어요.

이때 룡왕이 수염 한대를 뽑아 훌 뿌리었어요. 그런데 그 수염이 날아와 수혜박사의 품속으로 들어가는것이였어요.



“하하하하!”

룡왕이 너털웃음을 웃었어요.

갑자기 룡궁의 전등불이 몽땅 꺼지었어요. 수혜박사는 깜짝 놀라 고함쳤어요. 이때 누군가 그를 업고 룡궁밖으로 나오더니 잠수함안에 앉히는것이였어요. 수혜박사가 잠수함 문을 닫으며 불라니 문지기 철갑상어가 자기를 업고 룡궁에서 나왔던것이였어요. 수혜박사가 잠수함을 몰고 수면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갈 때였어요. 철갑상어 두마리가 잠수함 량쪽에 붙어 헤엄쳐 따라오면서 잠수함을 보호하는것이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수혜박사는 안전하게 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혜박사는 바다를 떠나 물으로 올라오자 숨이 꺾 막히는것이 아니겠어요. 수혜박사가 너무 갑갑하여 막 소리치면서 가슴을 두드리다가 깨보니 그것은 한날 꿈에 지나지 않았어요.

수혜박사는 너무도 놀라고 긴장하여 손에 땀을 쥐고있었고 잔등에는 식은땀이 나 즐벅하였던것이예요.

수혜박사가 자기 집에 놀러 온 본가집 어머니에게 꿈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자 본가집 어머니도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어요.

“네가 장차 큰일을 할 쌍둥이를 낳을것 같아. 내 저 금강산 절당에 가서 사위의 꿈애기를 하면서 어떤 애를 낳겠는가고 점을 쳐보았던다. 그랬더니 그 스님은 한참 무슨 공리를 하면서 중얼거리더니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장차 그 집에서 예쁜 공주와 신을 3개나 업은 남북골애를 낳을텐데 그 쌍둥이애들은 소가 났아도 우그러들지 않을 애들이요. 그 애들은 장차 우리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킬 큰일을 할 애들이니까 아낄것 없이 집을 팔아서라도 공부를 잘 시키우.’ 이



얼마나 기분 좋은 말이나?”

김지학박사와 수혜박사가 이상한 꿈을 꾼서 얼마 안되어 수혜박사는 어린애를 갖게 되었던것이예요.

그런데 김지학박사는 수혜박사의 남산만한 배앞에 록을 기를 들어다놓고 전문 타악기음악이 아니면 하늘을 날아예는 듯한 유유한 멜로디를 틀어놓고 태아교육을 하였어요.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들으면서 태아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대뇌가 트이라는것이였어요.

해양수산물학을 연구하는 수혜박사는 김지학박사와는 달리 전문 출렁이는 파도소리거나 고래의 울음소리거나 갈매기의 울음소리를 틀어놓았어요. 그녀는 처절씩처절씩, 우르릉 광광 들부시는 파도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배속의 어린 애기가 자기뒤를 이어 바다를 연구하는 위대한 학자가 될것을 두손 모아 기도하였어요. 이렇게 어린애 부모의 념원은 그가 태어나기전부터 엇갈렸어요.

어린애가 “웅아!” 하고 생존경쟁이 아주 심한 험악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오누이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누이쌍둥이의 태줄을 조상 대대로 혼이 살아 숨쉬고있는 고향의 산-칼산기슭에 파묻었어요.

김지학박사는 아들을 꼭 껴안고 마음이 든든해서 “에이 구, 이 우리 3대독자야, 요 귀여운 내 아들에 이름을 금별이라고 지으면 어떻소?” 하고 말하였어요.

“금별이라고 했어요?”

“그렇소. 김씨는 금과 통하지 않고 뭐요? 장차 우주와 땅을 연구할 지질학자가 되라는 큰뜻이 담겨있소. 어떻소?”

수혜박사는 조금 궁리하다가 “좋겠어요.”라고 단도직입

